

기타리스트의 고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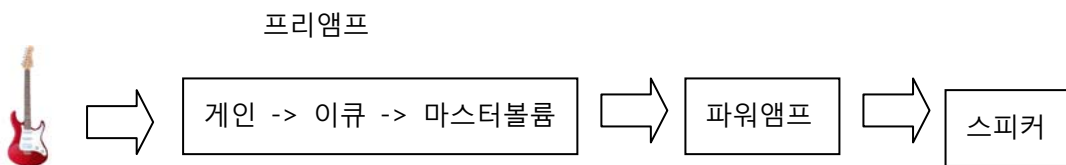
뮤지션 이라면 누구나 그렇겠지만, 특히 기타리스트들은 자신의 톤에 너무나 예민합니다. 조금이라도 나은 톤을 구현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돈을 투자하지요. 많은 기타와 앰프, 이펙터 들을 시험해봄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여러 종류의 케이블들을 놓고 각각의 사운드 특성을 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톤은 그 기타리스트의 연주의 일부이며, 실력의 일부이기 때문에, 기타리스트라면 누구라도 기꺼이 그 '고행'에 동참하는 것이지요.

일렉트릭 기타사운드를 결정하는 요소는 수도 없이 많지만, 필자는 기타 앰프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싶습니다. 크랭크 업(볼륨을 높이는 것)된 진공관 기타앰프의 사운드는 그 어떤 이펙터로도 흉내낼수 없는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타 앰프 자체 내에서 생성되어 지는 디스토션은 크게 세 스테이지로 나뉘어 집니다.

첫번째는 프리앰프 디스토션; 이는 주로 앰프 자체내의 오버드라이브 회로를 이용하거나 마스터 볼륨을 통해 얻어질수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파워 앰프 디스토션; 이는 정말로 '크랭크 업' 되어진 세팅 에서만 얻어질 수 있는 강하게 드라이브된 파워부 진공관을 통해 얻어지는 디스토션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스피커 디스토션이 있습니다. 이는 크랭크 업 된 앰프 소리가 스피커를 강하게 가동시킬 때 얻을 수 있는 사운드입니다. 보통 100에서 150와트 같은 하이파워 스피커 보다는 Celestion 에서 나온 25와트 규격의 Greenback 모델 같은 스피커에서 보다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타앰프의 증폭 구조

대부분의 기타리스트들이 쉽게, 그리고 자주 경험할 수 있는 디스토션은 첫번째로 말씀드린 프리앰프 디스토션입니다. 낮은 레벨에서 쉽게, 원하는 만큼의 디스토션을 구현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타리스트들은 궁금해합니다. "왜 내가 음반이나 라이브에서 듣던 그런 사운드가 나지 않는 것일까?" 그래서 같은 기타, 같은 이펙터, 같은 앰프를 구입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리뷰를 통해 기타리스트들의 이런 고민을 해결할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SPL Cabulator

SPL (Sound Performance Lab)은 기타리스트들에겐 약간은 생소할수도 있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SPL은 오랜기간동안 마이크 프리앰프, 채널스트립, 이퀄라이저 등의 하이엔드 스튜디오 레코딩 장비들을 생산해온 명망있는 회사입니다. 이 SPL 에서 이번에 기타리스트를 위한 케비넷 시뮬레이터 두종류를 발매하였습니다. 이번에 리뷰할 Cabulator와 Transducer가 그것입니다.



Cabulator



Transducer

Cabulator 는 파워 속(Power Soak), 스피커 시뮬레이션, D.I. 등을 기능을 제공하고, Transducer는 아날로그 스피커, 마이크 시뮬레이터이다.

앞서 언급했던 많은 기타리스트들이 충분히 고가의 장비들을 갖추고도 마음에 드는 사운드를 뽑아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앰프를 충분히 크랭크 업 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프리앰프 디스토션은 컨트롤 하기 쉬운 장점은 있지만, 속이 빈듯한 얇은, 쉽게 설명하지만 맥아리가 없는 사운드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이유로 기타리스트들은 보다 힘있는 사운드를 얻기 위해 디스토션 레벨을 더욱 올리게 되고, 결과는 점점 악화될 뿐입니다.

기타앰프에서의 파워 앰프의 역할은 단지 프리앰프에서 다듬어진 소리를 볼륨만 올려주는 역할이 아닙니다. 이렇게 볼륨을 올려주는 과정에서 진공관 앰프 특유의 사운드가 가미가 되고, 이는 기타 사운드를 보다 힘있고 알맹이있는 사운드로 바꾸어놓게되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 이렇게 파워앰프를 충분히 드라이브 시킬만큼 볼륨을 올리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마스터 볼륨을 줄이면 되지 않냐고 생각하실수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스터 볼륨은 프리앰프부에 속해있는 볼륨입니다)

집에서는 말할것도 없고, 공연이나 레코딩 시에도 원하는 만큼의 레벨을 얻기 쉽지 않습니다. 거의 언제나 기타리스트는 볼륨을 올리길 원하고 엔지니어는 낮추기를 원합니다. 모니터 문제나 다른 마이크로의 소리가 새어나갈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기타앰프의 볼륨은 높으면서 스피커 레벨은 낮게 만들면 된다는 모순되면서도 간단한 해결책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해결책으로 SPL의 Cabulator가 해답입니다.

이 기기의 역할을 한줄로 간단히 설명하자면 '기타앰프 파워부의 마스터 볼륨'이라고 생각하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기타 이펙터들 셋업과는 다르게 Cabulator 같은 Power Attenuator류의 기기 세팅엔 약간의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파워 앰프 아웃은 프리앰프나 기타 신호와는 비교할수 없을 정도로 높은 레벨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앰프의 출력 트랜스나 Cabulator 혹은 스피커에 해를 끼칠 수 있기때 문입니다.

모든 연결은 앰프의 전원을 끈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절대 스피커 선을 켜져 있는 케이블 (기타 케이블등) 을 사용해선 안 됩니다. 또한 4옴,8옴,16옴 등으로 표시되어 있는 임피던스를 제대로 맞추어 연결해야만 합니다.

Cabulator 는 세가지 형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첫번째로 스피커 시뮬레이션입니다. 스피커에 연결하지 않고 Cabulator 의 D.I. Out을 콘솔에 바로 연결하거나 A.D. 컨버터에 연결하여 컴퓨터로 녹음이 가능합니다.

두번째로는 이 기기의 핵심인 Power Soak 기능입니다. 기타 앰프와 스피커 사이에 연결하여 낮은 볼륨으로 크랭크 업 된 앰프 사운드를 만들어낼수 있는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의 두가지를 같이 사용할수도 있습니다. 스피커로 앰프 사운드를 뽑아내면서 D.I. Out으로 라인아웃 신호로 동시에 사용이 가능하다.

테스트

테스트에 사용된 장비

기타 : Fender Stratocaster 57' Reissue



앰프 : 1987 Marshall Plexi (Homemade)



스피커 캐비닛 : Marshall 4X12 (Celestion Greenba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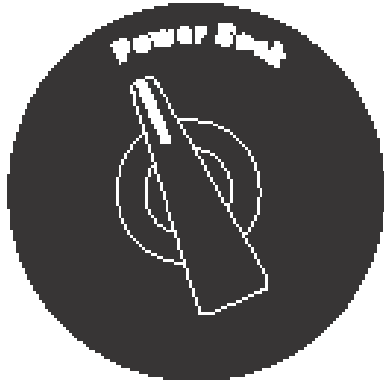


이펙터 : Fulltone 69, Fulltone 70, Fulltone Soul Bender, Radial Tonebone



케이블 : George-L , Evidence 스피커 케이블

Marshall 1987 Plexi 앰프는 50W 앰프로서 마스터 볼륨이나 게인(Gain) 같은 현대적인 기능이 없는 진공관 기타 앰프의 가장 기본적인 회로에 충실한 앰프로서 Cabulator를 테스트 하는데 있어 가장 좋은 앰프라 생각 되어서 선택 하였습니다.



(Power Soak.pdf)

볼륨에 해당하는 노브입니다. 시계방향으로 풀업(Full Up) 시킨 볼륨은 Cabulator 를 사용하지 않은 볼륨보다 약 8dB 작다. 8dB의 크기는 쉽게 말하자면 100와트 앰프를 50와트로 하프파워 모드로 구동할때의 소리크기와 같습니다.

즉 Cabulator 의 최대 볼륨은 실제 앰프의 최대 볼륨의 반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풀업 시킨 상태에서 Power Soak 노브를 서서히 줄여 보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실제 앰프 소리의 캐릭터나 다이내믹의 변화를 거의 느낄수 없었습니다. 정말 말그대로 '볼륨만' 작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앰프의 볼륨을 풀 업 시키고 Power Soak 레벨을 9시 방향 정도로 낮추어 보았습니다. 정말 순수히 진공관을 드라이브 시켜 얻어진 힘있고 짙은 사운드를 새벽 세시에 이웃집의 신고없이 들어볼수 있었습니다.

이펙터를 연결해 보았습니다. Fuzz 이펙터는 마스터볼륨이 없는 진공관 앰프를 크랭크 업 시켜야만 제대로된 사운드를 얻을수 있는 정말 까다로운 이펙터입니다. 아까 세팅 그대로 풀업시킨 앰프에 연결한 Fuzz 사운드는 정말 내가 예전에 쓰던 제품과 같은 제품인지 의심이 들 정도로 180도 다른 사운드를 들려주었습니다. 속이 짝차고 두께감 있는 사운드 캐릭터는 기타 볼륨에 따라 섬세하게 강약을 조절해주었고, 그동안 말로만 들었던 Fuzz 사운드의 진수를 맛볼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다음은 디스토션 페달을 연결해보았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같은 앰프 세팅으로 페달은 솔로 부스트 부터 강한 디스토션 세팅까지 여러가지로 테스트 해 보았습니다. 어떤 세팅에서도 Cabulator를 사용하기전 보다 디스트 양을 반만 사용해도 훨씬 강렬하고 힘있는 디스트 소리를 만들어주었습니다.

Cabulator로 달라진 앰프 사운드는 연결하는 모든 이펙터, 기타들의 사운드를 180도 다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 그만그만하게 느껴왔던 각종 이펙터 페달 들이 Cabulator로 풀 업된 앰프에 연결되었을땐 그동안 못느꼈던 기기 각각의 특성을 선명하게 드러내주었습니다.

Power Sock 노브를 제외한 Speaker Voicing 노브, Speaker와 Cabinet 스위치는 D.I. Out 으로 빠지는 소리에만 적용되는 컨트롤입니다.



Speaker Voicing 노브

(Speaker Voicing.pdf)

Speaker Voicing 노브는 단순히 톤 조절노브가 아닙니다. 실제 스피커를 울리지 않은 라인 아웃 신호로써 볼륨에 따른 스피커의 특성을 시뮬레이션 해줍니다. 예를 들면 앰프 볼륨이 높아질수록 중음이 더욱 또렷해지고 컴프레션이 일어나기 마련인데, 이 Speaker Voicing 노브는 그걸 정확히 표현해줍니다. 즉 앰프의 볼륨 노브 같이 0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지만 노브를 오른쪽으로 돌릴수록 볼륨의 증가와 더불어 두터운 중음과 내추럴 컴프레션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시퀀서에서의 VST 기타 앰프 시뮬레이션과는 그 차원이 다릅니다. Cabulator의 D.I. Out은 단지 스피커만 거치지 않았을 뿐이지, 앰프의 모든 회로를 거쳐서 나온 소리에 Speaker Voicing 으로 스피커 사운드 보정을 더한 사운드 이기 때문입니다.



Cabinet 스위치

(Cabinet.pdf)

이 스위치는 Open 과 Close 를 선택할수 있는데, 이는 스피커 캐비닛 뒷면의 개방형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Open은 Open Back Cabinet 을 말하는 것으로써 뒷면을 열어놓은 스피커 캐비닛입니다. 고음대가 강조된 사운드로서 탄탄한 저음역대를 표현해줍니다. Fender 의 Twin Reverb,

Deluxe Reverb등의 사운드를 생각해보면 될듯합니다.

Close 는 반대로 뒷면을 모두 막아놓은 캐비닛으로서, 풍부한 저음역대를 재생시켜줍니다. 보통 12인치 네방짜리 캐비닛들이나 베이스 앰프들이 이 Closed Back Cabinet을 사용합니다.



Character 스위치
(character.pdf)

이 스위치는 MesaBoogie 의 Dual Rectifier 에 사용된 회로를 시뮬레이션 한듯합니다.

교류를 직류로 정류할 때 Diode를 사용하는 회로 (Modern)와 진공관을 사용하는 회로(Vintage)의 사운드 차이를 선택하는 스위치입니다.

Modern 은 좀더 저음부가 단단하며 고역대가 강조된 사운드이며, Vintage는 저음역대가 약간 풀어진듯 강하게 반응하며 좀더 부드러운 사운드를 내어줍니다.

결론

시중에는 많은 종류의 Power Attenuator 제품이 나와있습니다. THD의 Power Plate, Marshall의 Power Brake, Kendrick Amplifier의 Power Glide, Dr. Z의 Air Brake 등등의 제품들이 나와있고, 이 모든 제품을 다 써본건 아니지만, 이번 SPL의 Cabulator는 확실히 Power Attenuator 제품의 스탠다드를 두어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준 제품임엔 분명합니다.

보통 D.I. Ou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베이스 앰프와는 다르게 기타에서의 D.I. Out은 있으나마나한 기능으로 치부되어 왔던게 사실이나, Cabulator의 D.I. Out 기능은 기대를 훌쩍 뛰어넘을 정도의 높은 퀄리티를 제공해주었습니다. 이는 라이브나 공연시 기타 사운드 메이킹에 많은 옵션을 제공해줄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진공관 앰프의 볼륨 세팅에 따른 사운드의 변화를 확실히 인식하게 만들어 주어, 어떤 볼륨 레벨 연주에서건 올바른 사운드 세팅을 할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는 공연에서건 연주에서건 중요한 점인데, 볼륨 3에서의 앰프와 볼륨 8에서의 앰프는 사실상 다른 앰프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볼륨 3에서의 세팅으로 볼륨 8에서 연주해선 안되며 그 반대의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진공관 앰프는 그만큼 예민한 장비인 것입니다.

또한 Cabulator 의 사용으로 사운드 외적으로 달라지는 점이 있다면, 많은 기타리스트들이 자신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비들이 얼마나 좋은 장비인지를 깨닫게 만들어줌으로써, 그들의 장비 지름 병을 어느 정도 치유해줄 수 있다는 점이고, 또한 녹음이나 공연 시엔 엔지니어와의 마찰을 줄여서 오랜 기간 쌓여왔던 엔지니어와 뮤지션간의 해묵은 앙금을 해소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Cabulator 를 사용함으로써 단 한가지 단점이 있다면, 앰프의 파워부를 강하게 드라이브 시킴으로써 파워부 진공관의 수명이 단축될수 있다는 점인데, 이정도의 사운드 퀄리티를 얻을수 있다면 그정도 단점은 기꺼이 받아들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기타 톤에 고민을 하고 있는 기타리스트라면 진지하게 관심을 갖어 보아야 할 제품 임에 분명합니다.